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정 윤 경*, 박 혜 진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아동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양육 행동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령 전기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 관련 신념 척도(PBAF; Dunsmore & Karn, 2001)와 정서 표현 척도(EEQ; King & Emmons, 1990),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척도(CCNES; Eisenberg & Fabes, 1994)와 정서 이야기 수준을 측정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부모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은 정서언어, 발달적 준비성, 정서적 유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의 네 가지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한국 부모는 정서적 유대에 대해 가장 높은 신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이었다.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중에서도 정서 표현, 특히 긍정 정서 표현과 친밀감의 표현, 정서 이야기 수준에서 부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 정서에 대한 신념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정서언어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지지적인 정서 양육과 높은 관련을 맺었으며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은 지지적인 정서 양육 뿐 아니라 부정정서 표현이나 최소화 같은 비지지적 양육 행동과도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정서 표현,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 이야기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그 발달에 대해 갖는 신념은 자녀 양육 행동에 깊이 관여하며 아동의 정서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신념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구성된다(Frankel & Roer-Bornstein, 1982; Goodnow, 1988; Hess et al., 1980). 국내에서 정서

* 교신저자 : 정윤경, E-mail: benijeong@catholic.ac.kr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기저 하는 한국 고유의 부모 신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Nahm, 2006; Cervantes & Seo, 2005).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의 아동 정서발달과 관련된 신념과 양육 행동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정서와 그 발달에 관하여 고유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서와 관련된 태도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egotardi, Torr & Cross, 2008; Dix, 1991; Dunsmore, Halberstadt & Perez-Riviera, 2009; Dunsmore & Kar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6; Harkness & Super, 1996; Rubin & Chung, 2006). 가령,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부모들은 스스로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Beck, Emery & Greenberg, 1985),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 표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가 슬픔, 분노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할 때 이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함께 공감하며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여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명료하게 지각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반면 정서 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분노는 부정적 의도나 불복종 또는 나쁜 성격을 반영하며 자녀의 슬픔은 무능력과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믿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그 표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할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7). 또한 아동의 정서발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직접 가르치고 언어화 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은 아이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자녀의 정서 경험을 말로 표현하려 할 것이다(Cervantes & Seo, 2005; Dunsmore & Karn, 2001, 2004).

이러한 자녀의 정서에 관한 부모의 신념과 생각에 대하여 Gottman과 그 동료들은 상위 정서 철학(meta emotion philosophy)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자녀 양육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Gottman, Katz, & Hooven, 1996; Katz, Wilson, & Gottman, 1999). 이들은 크게 두 유형의 대조되는 상위 정서 철학을 제안했다(Gottman, et al., 1996). 정서 코칭 철학(emotion coaching philosophy)은 자신과 자녀의 모든 정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정적인 정서라도 그 표현을 통해 부모 자녀 간에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그 유능함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신념을 말한다. 반면 정서 방임적 철학(emotion dismissing philosophy)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는 위험한 것으로 바로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 근거하여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을 구체적인 양육 행동으로 제시하고 이를 부모면접을 통해 검증하여 상위 인지와 양육 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혔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후 연구자들은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보다 정교한 요인으로 구분 짓고 부모 양육 행동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Halberstadt, Thompson, Parker, & Dunsmore, 2008). Dunsmore 와 Karn(2001)은 이러한 아동 정서와 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정서

언어 신념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 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Eaton, Halberstadt, & McCool, 2001). 가령, 높은 정서언어 신념을 갖고 있는 어머니는 3-4살 아동의 정서를 명명화하고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 스타일은 자녀의 정서이해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정서신념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smore & Kam, 2001). 또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정서 상태를 구별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정서를 이해·명명화 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Denham, Zoller, & Couchoud, 1994; Dunn, Brown, & Beardsall, 1991) 정서 관련 개념체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Hoffman(1983)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는 유아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부모와 정서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은 정서 단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서와 정서표현의 결과를 예측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이렇듯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주요한 부모 행동의 요인이지만 정서언어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정서에 대한 자체와 통제를 중요시 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정서를 언어화 하는 것에 대하여 서양의 부모보다 낮은 신념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자녀의 발달적 준비(developmental readiness)에 대한 신념으로 이는 그들의 자녀가 정서적 대화나 정서 조절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이 또한 정서에 대한 자녀 양육 행동과 관련을 맺는다. 가령, 자녀가 발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정서적 소통을 꺼려하거나 자녀의 정서 표현을 더욱 통제할 수 있다. 실제로 Dunsmore와 동료들의 연구(2001, 2004)는 어머니의 발달적 신념이 낮은 경우 자녀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발달적 신념이 자녀의 실제 연령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Dunsmore와 Kam(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의 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Cervantes와 Seo(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와 유교적 전통을 반영하는 정서표현의 자체(Emotional reserve)가 추가적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깝게 느끼도록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 간 친밀함을 주로 신체적 접촉(가령, 끌어 안아주기, 쓰다듬어 주기)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서표현을 자체해야 한다는 신념은 정서를 드러내지 않거나 통제하고 억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정서를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Yi, 1993)이 반영된 것으로 부정 정서의 표현에 대한 낮은 신념, 즉, 부정 정서의 표현은 관계를 해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는 신념이 포함된 것이다(최혜연,민경환, 2005).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은 한국인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최상진, 김태연, 2001), 체면과 공손함을 중시하고 부정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왔다(최상진, 1997).

주지하는 바, 문화적 차이는 정서를 일으키는 사건, 그것이 경험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는 또한 특정 문화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갖는 신념과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Paidada, & Liew, 2001; Harkness & Super, 1996) 또한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심리학적 원리들은 서로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으로(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한국이라는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한국 부모들의 정서 관련 신념과 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부모들의 경우 전통적 유교 사상과 빠르게 유입되는 서양의 교육 이론이 혼합된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과 양육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Cho, Humble, Jeong, & Petersen, 2011). 유교적 전통은 가족 응집성과 조화 그리고 관계 내 위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서 표현을 자중하고 억제하는 양식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서적 표현의 자제에 대한 높은 신념을 발견한 Cervantes와 Seo(2005)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를 직접 비교한 Nahm(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부모는 자녀와의 게임 중에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낮고 보다 지시적인 반응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서양 문화의 영향은 자신의 정서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도록 한다(조금호, 2007). 이와 같은 정서와 정서 표현에 대하여 서로 대조되는 문화적 영향력이 현재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전통적 관점에 근거한 정서 관련 훈육을 받았지만 현재는 정서의 표현과 소통을 중시하는 서양 문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들이 현재 자녀의 정서 발달에 관하여 어떠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이 정서와 관련된 부모 양육 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으로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1998)이 제안한 정서 표현,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반응 그리고 정서 이야기하기를 다루었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먼저, 부모의 정서 표현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패턴이나 스타일을 의미하며(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적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가령,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인 어머니의 걸음마기 아동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Cassidy, Parke, Vygotsky, & Braungart, 1992; Denham, 1989),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해온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조절하는 첫 번째 수단으로 억제적 방략을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표현성과 학교에서 관찰된 아동의 정서적 균형이 정적으로 상관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성인 연구에서도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자녀의 정서 표현과 표현에 대한 갈등과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Balswick & Avertt, 1977; Halberstadt, 1986; 정윤경 박보은, 2010) 어머니 표현성의 지속적 영향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번째 정서 관련 양육 행동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지지적 반응과 세 가지의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진다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지지적 반응은 자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정표현의 격려, 자녀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 중심적 반응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자극에 자녀가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중심적 반응을 포함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으로는 자녀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의 가치를 낮추는 최소화 반응(minimization)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처벌적 반응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하여 부모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포함한다. 실제로 Eisenberg와 Fabes는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는 12개 상황을 중심으로 한 척도를 구성하여 부모의 반응양식을 측정하여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높음을 제안하였다. 가령, 정서표현에 대하여 부모가 지지적인 경우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공감 능력 또한 높았으나(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비지지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자녀들은 정서 반응을 숨기고 높은 정서적 각성 상태에 있으며 쉽게 안정되지 못하며(Buck, 1984;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갈등과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보였다(노지영, 정윤경, 2010).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인 반응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최소화 반응은 회피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반응은 아동의 사고 억제, 우울,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마지막으로 Eisenberg(1998) 등이 제안한 부모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은 정서적 대화로서 부모-자녀 간 정서적 경험과 이를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부모-자녀 간 대화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전달하고 정서적 경험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규칙과 가치를 전달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Malatesta & Haviland, 1985). 가령,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거나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격려하여 정교한 정서 개념을 발달시키며,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자녀의 귀인양식을 강화 또는 억제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는 어머니에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 경험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고 교환함으로써 정서에 대해 보다 명시적 표상을 갖고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몇몇 연구결과들은 어머니가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자녀도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 하며(Dunn, Bretherton, & Munn, 1987), 정서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뿐 아니라 정서적 이해 및 감정 조망 능력이 높았음을 나타냈다. 나아가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서 관련 양육행동으로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 및 가치와 높은 관련을 맺음을 주장하고 있다(Eisenberg et al., 1998).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자녀 정서발달과 관련된 신념과 양육행동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 아버지의 양육특성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의 성별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정서적으로 표현이

높으며(King & Emmons, 1990) 정서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Wheeler & Nezleck, 1977), 남자보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한다(Block, 1983). 또한 실제 양육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긍정적인 정서와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고 정서적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Garner, Robertson, & Smith, 1997), 자녀에게 정서표현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Fivush, Gray, & Fromhoff, 1987;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 Kuebli & Fivush, 1992).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서양 문화의 영향에 따라 정서 관련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어왔다(송순, 송희옥, 2003; 송하나, 2006; 함인희, 1997).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자녀들과의 친밀한 유대를 통해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Geiger, 1996; Pruett, 2000). 또한 국내외 연구들은 아버지의 역할이 아동의 정서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령, 아버지가 놀이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부정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자녀들은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성이 낮으며(Carson & Parke, 1996), 아버지가 자녀의 정서를 통제하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통제하는 자녀들보다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밝혔다(McDowell, & Parke,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기저하는 아버지의 신념이나 믿음을 직접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분은 한국의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으로 반드시 비교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또한 부모 비교는 빠르게 유입되는 서양의 영향에 두 집단이 어떻게 반응하여 변화하는지를 밝혀줄 흥

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동 정서발달 관련 신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을 밝혀 부모 양육 행동의 개인차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 부모의 아동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 신념 및 양육 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정서발달 관련 신념과 양육 행동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은 정서 발달 관련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아동 부모 7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2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부모의 성별은 남자가 164명, 여자가 248명이었다.

측정도구

정서표현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하고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척도(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상황에 상관 없이 정서 표현에 대한 실제 표현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

문지 앞에 ‘자녀에게’라는 상황을 제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실제 표현 수준을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Likert 식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친밀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친밀 정서 표현은 .73, 부정적 정서 표현은 .67, 긍정적 정서표현은 .68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Fabe, Eisenberg와 Bernzwing(1990)이 개발한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김희정(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표현의 격려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의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3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에서 정서표현 격려(.82), 정서 중심적 반응(.81), 문제 중심적 반응(.80)을 포함한 지지적 반응은 적절하게 나타났으나 처벌 반응(.66), 최소화 반응(.63),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53)

을 포함한 비지지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정서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Dunsmore와 Karn(2001)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고식 질문지(Parent’ Beliefs About Feelings Questionnaire : PBAF)를 Jeong & Cho(2011)가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Dunsmore와 Karn(2001)은 정서 언어신념(문항 예: 자녀가 화났을 경우, 나는 그 기분을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다.)과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신념(문항 예: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분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리다)의 두 범주와 이후 Seo와 Cervantes(2005)에 의해 추가된 정서적 유대(문항 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와 정서표현의 자제(문항 예 : 부모는 자녀가 슬픔을 느끼거나 걱정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는 안된다)를 포함하여 4 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된 4개의 하위 범주가 한국 거주 부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얻었다(CFI=.904, RMSEA=.071). 각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정서언어 신념 .65, 발달적 준비성 신념 .68,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 .78, 그리고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은 .64이다.

* 이는 본 척도에서 부모 개인이 본 척도에서 제시한 12개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비지지적 반응을 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후 연구에서 상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한다.

정서 이야기하기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하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자신과 자녀의 정서 경험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를 6점 척도 상(1=전혀 안한다, 6=매우 자주한다)에 표기 하도록 하였다.

결 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

부모의 성별에 따른 정서관련 양육신념의 하위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표1에 제시되었다. 정서발달 신념에서 각 하위 차원에 대한 한국 부모의 신념이 어떠한 양태를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성별(2) * 정서 신념 하위 영역(4)을 변인으로 2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신념이 아버지의 신념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F(1, 404) = 3.01, p = .08$, 정서 신념의 하위 영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 1212) = 458.74, p < .01$. 신념의 하위 차원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검증으로 S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았으며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신념이 가장 낮았고 그 사이에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과 정서 언어에 대한 신념이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부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유대나 발달적 준비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p = .064$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드러냈다, $p < .01$.*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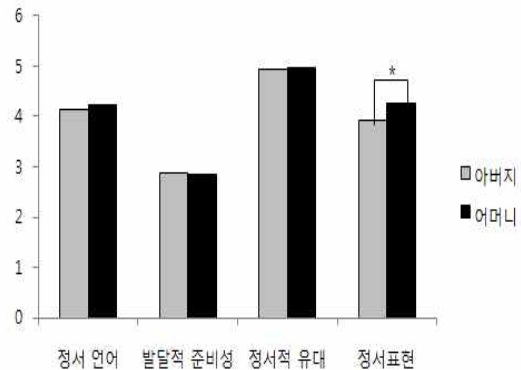


그림 1.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동의 정서발달 관련 양육 행동

정서발달 관련 부모의 양육 행동 중 정서 표현 수준이 부모의 성별과, 정서 유형에 따라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원 변량 분석(부모*정서유형)을 실시하였다(표1). 그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표현 수준을 보였으며, $F(1, 404) = 14.19, p < .01$, 정서표현의 영역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F(2, 808) = 113.77, p < .01$. 사후검증(Sheffé test) 결과 친밀감의 표현이 긍정, 부정 정서의 표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부모 간 차이는 긍정 표현($p < .01$)과 친밀감($p < .05$)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정 정서 표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는 지지적 반응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 404) = 508.35, p < .01$, 부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 Cervantes 와 Seo(2005)의에서 정서적 자재(emotional reserve)로 범주화한 문항들 즉, 정서 표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묻는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표현에 대하여 높은 신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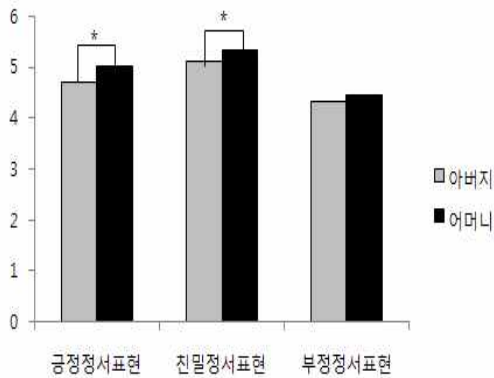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정서 표현 수준

않았다. 이를 다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지적 반응에서는 부모 모두 정서표현에 대한 격려와 정서 중심적 반응보다는 문제 중심적 반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808) = 341.81, p < .01$, 비지지적 반응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처벌 반응보다는 최소화 반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808) = 368.78, p < .01$.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 중 스트레스 반응에서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 < .05$.

마지막으로 자녀와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양적분석이 가능한 문항 ‘자녀와 자기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아이의 정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가’의 반응에 대한 부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신의 정서 경험 보다는 아이의 정서 경험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 했으며, $F(1, 404) = 185.12, p < .01$,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두 유형에서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04) = 25.61, p < .01$.

부모의 아동 정서에 대한 신념과 정서 관련 양육 행동 간의 관계

아동 정서관련 신념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어머니와 아버지 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집단 모두 정서 관련 신념 중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은 긍정 정서(어머니: $r = .409, p < .01$, 아버지: $r = .468, p < .01$)와 친밀감 표현(어머니: $r = .390, p < .01$, 아버지: $r = .365, p < .01$), 모든 유형의 지지적 반응, 그리고 정서 대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s < .05$). 반면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부정정서에 대한 처벌 반응(어머니: $r = -.140, p < .05$, 아버지: $r = -.355, p < .01$)과 스트레스 반응(어머니: $r = -.213, p < .01$, 아버지: $r = -.210,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아동의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정서표현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정서표현에서만 관련성을 나타냈으며($r = .212, p < .01$) 부정정서에 대한 반응 영역에서는 처벌(어머니: $r = -.158, p < .05$, 아버지: $r = -.246, p < .01$)과 스트레스 반응(어머니: $r = -.196, p < .01$, 아버지: $r = -.194, p < .05$)과 부적 관련성을 보였고 정서 이야기하기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적 유대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 정서(어머니: $r = .360, p < .01$, 아버지: $r = .430, p < .01$), 부정 정서(어머니: $r = .174, p < .05$, 아버지: $r = .163, p < .05$), 친밀감 표현(어머니: $r = .491, p < .01$, 아버지: $r = .529, p < .01$)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드러냈다. 이는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든 지지적 반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p < .01$). 한편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처벌반응(어머니: $r = -.158$,

표1. 부모의 아동 정서에 관한 신념과 정서 관련 양육 행동

		아버지 M(SD)	어머니 M(SD)	<i>t</i>
정서발달 관련 신념	정서언어	4.14(.57)	4.23(.56)	1.85 [†]
	발달적 준비성	2.87(.23)	2.86(.24)	.82
	정서적 유대	4.93(.84)	4.96(.69)	.74
	정서표현	3.93(.62)	4.25(.62)	4.99**
정서 표현	긍정정서표현	4.69(.73)	5.02(.76)	4.27**
	친밀정서표현	5.11(1.03)	5.33(.99)	1.70
	부정정서표현	4.32(.97)	4.45(.77)	1.58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정서표현의 격려	3.12(0.48)	3.80(.57)	1.93 [†]
	정서중심적 반응	3.21(.45)	3.23(.44)	.58
	문제중심적 반응	3.70(.48)	3.36(.45)	.86
	처벌	2.45(.46)	2.51(.43)	1.24
	최소화	2.54(.42)	2.62(.38)	.26
	스트레스	2.45(.41)	3.09(.42)	2.77*
정서 이야기	부모 경험 이야기	2.96(.76)	3.23(.91)	3.11**
	아동 경험 이야기	3.47(.92)	4.02(1.02)	5.46**

* $p < .1$, * $p < .05$, ** $p < .01$

$p < .05$, 아버지: $r = -.197$, $p < .05$)과 스트레스 반응(어머니: $r = -.192$, $p < .01$, 아버지: $r = -.201$, $p < .05$),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최소화 반응과는 정적 상관을 드러냈다($r = .192$, $p < .05$).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긍정정서(어머니: $r = .433$, $p < .01$, 아버지: $r = .451$, $p < .01$), 친밀감 표현(어머니: $r = .362$, $p < .01$, 아버지: $r = .30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중, 정서 표현의 격려는(어머니, $r = .191$, $p < .01$, 아버지, $r = .172$, $p < .05$)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 중심적 반응

($r = .163$, $p < .01$)과 문제 중심적 반응($r = .251$, $p < .01$)은 어머니의 경우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처벌($r = -.168$, $p < .01$)과 스트레스 반응($r = -.136$, $p < .05$)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은 본인 경험 이야기하기(어머니, $r = .197$, $p < .05$, 아버지, $r = .163$, $p < .05$)와 아동 정서 이야기하기(어머니: $r = .159$, $p < .05$, 아버지: $r = .195$, $p < .05$)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 발달과 관련된 신념들이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 발달과 관련된 각각의 양

표2. 부모별 정서 발달에 대한 신념과 정서 관련 양육 행동 간의 상관관계

			정서 발달 관련 신념							
			정서언어		발달적 준비		정서적 유대		정서표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정 서 관 련 양 육 행 동	정서 표현	긍정정서	.468**	.409**	.212**	.057	.430**	.360**	.451**	.433**
		부정정서	.127	.123	.065	.021	.163*	.174*	.022	.024
		친밀정서	.365**	.390**	.003	.033	.529**	.491**	.309**	.362**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표현 격려	.381**	.411**	.093	.116	.318**	.229**	.172*	.191**
		정서중심적 반응	.361**	.443**	.155	.041	.510**	.372**	.016	.163**
		문제 중심적 반응	.411**	.469**	.098	.112	.463**	.367**	.140	.251**
		처벌	-.355**	-.140*	-.246**	-.158*	-.197*	-.158*	-.081	-.168**
		최소화	-.041	.023	.038	-.047	.192*	.055	.026	-.010
		스트레스	-.210**	-.213**	-.194*	-.196**	-.201*	-.192**	.032	-.136*
	정서 이야기	본인 경험 이야기	.159*	.217**	.024	.055	.175*	.050	.163*	.197*
		아동 경험 이야기	.227**	.351***	.076	.041	.261**	.238**	.195*	.159*

** $p < .01$. * $p < .05$

육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상관분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본 회귀분석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집단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긍정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정서 표현($\beta = .287, p < .01$), 정서 언어($\beta = .258, p < .01$),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beta = .101, p < .05$)이, 부정정서표현에 대해서는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beta = .122, p < .05$)이, 친밀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정서적 유대($\beta = .398, p < .01$), 정서 언어($\beta = .196, p < .01$)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beta = .103, p < .05$)이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 중, 정서 표현격려는 정서언어($\beta = .333, p < .01$)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beta = .146, p < .05$)이, 정서 중심적 반응에 대해서는 정서 언어($\beta = .333, p < .01$)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

념($\beta = .247, p < .01$)이, 문제 중심적 반응에는 정서 언어($\beta = .379, p < .01$), 정서 표현($\beta = .181, p < .1$), 정서 유대($\beta = .153, p < .01$)에 대한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 처벌 반응에는 발달적 준비($\beta = -.151, p < .05$)와 정서 언어($\beta = -.109, p < .1$)가 영향을 미쳤으며, 최소화 반응에는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beta = .158, p < .05$)이 스트레스 반응에는 발달적 준비($\beta = -.165, p < .01$), 정서유대($\beta = -.157, p < .05$)와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beta = -.101, p < .1$)이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정서 이야기하기에는 정서언어($\beta = .233, p < .01$)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beta = .205, p < .01$)이 가족 정서 이야기하기에도 정서표현($\beta = .201, p < .01$)과 정서 언어에 대한 신념($\beta = .169, p < .01$)이 영향을 미쳤다.

표 3. 정서발달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관련양육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정서관련 양육 행동	독립변인 (신념)	β	t	$adjusted\ R^2$	F		
정서 표현	긍정 정서	정서표현	.287	4.85**	.268	36.76**	
		정서언어	.258	4.83**			
		정서유대	.101	1.84*			
	부정 정서	정서유대	.122	1.86*	.033	3.41**	
		정서언어	.196	3.71**			
		정서표현	.103	2.30*			
부정 정서 표현	친밀 정서	정서유대	.398	6.95**	.286	40.19**	
		정서언어	.196	3.71**			
		정서표현	.103	2.30*			
	정서 표현	정서 표현 격려	정서언어	.333	5.88**	.178	27.76**
			정서표현	.146	2.33*		
			정서	.333	5.76**		
중심		정서표현	.247	4.53**	.229	31.08**	
		정서언어	.379	5.19**			
		문제 중심	정서표현	.181			3.04**
에 대한 반응	발달 적준비	정서유대	.153	2.63**	.261	35.38**	
		정서표현	.181	3.04**			
		정서언어	.153	2.63**			
	처벌	발달적준비	-.151	-2.96*	.283	8.73**	
		정서언어	-.109	-1.82 [†]			
		최소화	정서유대	.158			2.35*
이 야 기	스트 레스	발달적준비	-.165	-3.24**	.275	8.24**	
		정서유대	-.157	-2.41*			
		정서언어	-.101	-1.68 [†]			
	아이 이야기	정서언어	.233	3.99**	.130	14.93**	
		정서표현	.205	3.18**			
		가족 이야기	정서표현	.201			3.00**
		정서언어	.169	2.80**	.064	6.87**	

* $p < .1$, * $p < .05$, ** $p < .01$

논의

본 연구는 부모 자신이 아동의 정서와 그 발달에 대하여 갖는 신념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형성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내적 가치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특성과 관련을 맺음을 가정하고 한국 부모

들의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을 밝히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부모들의 아동 정서 관련 신념은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 발달적 준비성에 대한 신념,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서양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Cervantes와 Seo(200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네 영역 중 한국의 부모들은 모두 정서적 유대, 즉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념을 드러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환경에서 허물없음과 다정함을 주고받는 한국문화의 고유의 정서(김기범, 2009)와 가족 성원이 ‘개인’으로 구분되기보단 ‘우리’라는 정서적 관계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한국 고유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Kim, Kim & Kelley, 2006). 실제로 가족 내 정서 표현 중에서 친밀정서의 표현 수준이 가장 높은 결과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대한 준비 정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신념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는 아직 정서적 경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인과 적절히 소통하기에는 어렵다 믿으며 아직은 강한 정서적 경험이나 직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믿음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는 정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발달적 준비성이 낮다고 믿는 부모들이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특징을 보

이기도 하였다.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에서 부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 표현과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에서 부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정서 표현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의 차이를 반영하듯,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긍정 정서의 표현 수준이 낮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표현의 수준이 더 높고(Broady & Hall, 2000; Garner, Robertson, & Smith, 1997; 송하나, 2006;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다(Buck, 1984; Hall, 1984; Knapp, 1978; Noller, 2001)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낮은 정서 표현이 정서를 경험하는 강도나 빈도 차이뿐 아니라 (Averill, 1982; Kring & Gordon, 1998; Larsen & Diener, 1987),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 때문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서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실제로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 경험이나 아이의 정서 경험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서양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보다 자녀의 정서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도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arside & Klies-Dougan, 2002), 서양의 아버지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수용하기보다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요컨대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 교육에 대하여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낮은 수준의 관여를 보이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정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서적 양육 행동의 중요함을 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한한다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 Kuebli & Fivush, 1992).

정서와 관련된 양육 행동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 표현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 친밀 정서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신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비지지적 반응보다는 지지적 반응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양의 연구와도 유사하다(Cho, Jeong, & Petersen, 2011). 이를 다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지적 반응에서는 부모 모두 문제 중심적 반응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비지지적 반응에서는 최소화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모들이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려하기 보다는 유발 사건이나 아이 문제에 초점을 두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하여 부모 반응의 일관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척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부모의 반응 양식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O'Neal과 Magai (2005)은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나 이후 연구에

서 본 척도를 적용하여 정서 유형과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자녀와 정서 이야기 나누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수준임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절대적으로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정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어머니가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심리적 태도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서 신념과 행동 간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였다.

먼저 부모의 정서언어에 대한 신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높은 수준의 정서 표현과 보다 잦은 정서 이야기 나누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또한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도 관련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정서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 정서 표현을 격려하고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정서언어 신념은 처벌과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인 전략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실제로 아동의 부정 정서 표현에 대하여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이를 조절하도록 도와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어는 부모 자녀를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서언어에 관련된 신념은 부모의 바람직한 정서 양육 행동에 기여하는 인지적 측면으로 정서적 유능성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모의 특성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의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 아버지의 긍정 정서와 친밀정서의 표현 수준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자녀와 정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과도 관련이 높

았다. 반면 부모의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는 부정정서 표현에는 정서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뿐 아니라 부정정서 표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혜연, 민경환, 2005). 한편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 집단에서는 정서 중심적 반응이나 문제 중심적 반응과 관련을 맺었지만 아버지 집단에서는 관련이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이 자신의 정서 표현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 표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에도 영향이 미치나 아버지의 경우는 표현을 허락하는 소극적인 태도에만 관여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세 번째, 한국 부모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은 친밀감이나 긍정 정서 뿐 아니라 부정 정서 표현과도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형태의 관련성으로서 강한 정서적 경험으로 묶여 있는 가족은 집단 내 부정적 정서라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부모의 부정 정서 표현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솔직한 표현은 그것이 긍정 정서이든 부정 정서이든 자녀가 정서 표현과 관련된 지식과 신념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외의 몇몇 연구들은 실제로 가정 내 부모의 부

정 정서 표현의 수준이 너무 높지 않고 공격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녀의 공감 수준이 높고 정서 표현이 자유로움을 밝히고 있다(정윤경, 박보은, 2010; 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Davis & Cummings, 199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과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높은 관련성은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믿는 부모들이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해 자녀가 정서 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지식을 암묵적으로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유대감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최소화 반응을 보다 많이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최소화 반응은 자녀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부모의 일시적인 배려일 수 있지만 표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다.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믿는 아버지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축소하거나 전환시켜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Gottman 등(1996)이 제안한 정서 방임적 철학(emotion dismissing philosophy)과도 일맥상통하는 양육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로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 범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 최소화이고 정서적 신념 중 가장 높은 범주는 정서적 유대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갖는 역기능적 반응이 최소화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이 대체적으로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가령, 정서적 유대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처벌이나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낮았으며, 아이와 정서 이야기 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는 따뜻하면서도 예의를 존중하고 엄격한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고유한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정서와 관련된 양육과 신념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Greenfield & Suzuki, 1998).

마지막으로 발달적 준비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다루고 배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는 경우 자녀를 덜 통제하고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양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Dunsmore & Karn, 2001). 단지 처벌과 스트레스 반응과 부정 상관을, 아버지의 긍정 정서 표현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부모들이 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적 수준에 대한 믿음보다 정서적 표현이나 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제를 중시하는 전통적 관점과 표현과 소통을 중시하는 서구의 영향이 공존하는 맥락에서 부모들이 어떠한 신념과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었다. 한국의 부모들은 여전히 정서적 유대를 높이 여기면서도 정서의 표현과 언어적 소통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동 정서발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실제 양육 행동과 관련을 맺음을 검증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와 정서

에 대해 갖는 인지적 신념이 아동 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 행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확인하여(Degotardi & Cross, 2008; Dusnmore & Kar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7; Harkness & Super, 1996;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 Rubin & Chung, 2006), 긍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행동 전략 뿐 아니라 정서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에 의한 자기 보고로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간 대화를 직접 관찰한 실제 양육 태도의 점검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서관련 신념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가령, 부정적 정서의 가치, 자녀에게 정서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부모 자녀의 관계의 중요성과 같은 다른 범주의 신념 또한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범(2009). 정(情) 마음 모형 검증. 한국사회및 성격심리학회지. 23(1). 147-163.
- 김희정(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노지영, 정윤경(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상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3(2). 57-71
- 송순, 송희옥 (2003).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17-432.
- 송하나 (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식. 한국발달심리학회. 23(4), 111-126.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제 14장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2000). 정 (情) (미운정 고운정) 의 심리적 구조 ,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14(1), 203-223.
- 최상진, 김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7(2), 21-38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4(1), 239-257.
- 조금호(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심리학적 접근. 서울: 지식산업사.
- 하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한국가족학회지 2권. 1-24.

Averill, J.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alswick, J., & Avertt, C. P. (1977). Differences in expressiveness : Gende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perceived parental expressiveness as 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21-127.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lock, J. (1983). Differee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rody, L. R., & Hall, J. A. (2000). *Gender, emotion, and expression*. In M. Lewis &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338-349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rson, J. L., & Parke, R. D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ervantes, C. A., Seo, M. (2005). *Korean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 examination of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context*.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A.
- Cho, G., Humble, J., Jeong, Y., & Petersen, M.(2011). *Mother's and father's emotion beliefs and strategies: A cross cultural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treal, Quebec.
- Cassidy, J., Parke, R., Vygotsky, L., & Braungart, J.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gotardi, S., Torr, J., & Cross, T. (2008). 'He's got a mind of his own':A framework for determining mothers' beliefs about their infants' mi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259 - 271.
- Denham, S. (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368-376.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298-93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ornbush, S., Ritter, P., Leiderman, P., Roberts, D., & Fraleigh, M.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unn, J., Bretherton, I., &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139.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 - 455.
- Dunsmore J. C., & Karn M.(2001). Mother's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Vol.12*, 117-138.
- Dunsmore J. C., & Karn M.(2004).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and maternal socialization on kindergartners' developing emotion knowledg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5, 39-64.
- Dunsmore, J. C., Her, P., Halberstadt, A. G., & Perez-Rivera, M. B. (2009). Parents' beliefs about emotions and children's recognition of parent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30, 121 - 140.
- Eaton, K. L., Halberstadt, A. G., & McCool, A. K. (2001). *Unpacking emotion socialization: How beliefs about emotions influence parents' expressive and reactive emotion style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Pidada, S., & Liew, J.(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2(6), 1747 - 1763.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in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Manuscript. Arizona State University.
- Frankel, D. G., & Roer-Bornstein, D. (1982). Traditional and modern contribution to changing infant rearing ideologies of two ethnic communit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 1-51.
- Fivush, R., Brotman, M., Buckner, J. P., & Goodman, S. (2000).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emotion Narratives, *Sex Roles*, 42, 233- 254.
- Fivush, R., Gray, J. T., & Fromhoff, F. A. (1987). Two-year-old talk about the past. *Cognitive Development*, 2(4), 393-409.
- Garner, P. W., Robertson, S., & Smith, G. (1997).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s with peers: The roles of gender

- and emotion socialization. *Sex Roles*, 36, 675-691.
- Garside, R. B., & Klimes-Dougan, B. (2002). Socialization of discrete negative emotions: Gender differences and link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Sex Roles*, 47, 115-128.
- Geiger, B.(1996). *Fathers as primary caregivers*. Westport: Greenwood Press.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Erlbaum.
- Greenfield P.M. & Suzuki, L. (1998).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arenting, education, pediatrics, and mental healths. W. Damon, I. E. Siegel, A. A. Renning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1059-1109. NY: John Wiley & Sons.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Cassidy, J., Sh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Halberstadt, A. G.,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retrospectiv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s, E. Coats(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pp. 10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berstadt, A. G., Thompson, J. A., Parker, A. E., & Dunsmore, J. C. (2008). Parents' emotionrelated beliefs and behaviours in relation to children's coping with the 11 September 2001 terrorist attack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557 - 580.
- Hall, J. A. (1984). *Nonverbal sex differences : communication accuracy and expressive styl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rkness, S., & Super, C. (1996).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 their origins, expressions and consequences*. New York: Guilford.
- Hess, R. Kashwagi, K., Azuma, J., Price, G., & Dickson, W. (1980). Maternal expectat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 in Japan an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 259-271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 progr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s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alcultural perspective*, 236-274.
- Jeong, Y. K., & Cho, G. (2011). *Generation Difference in Korean Parents' emotion related Belief and Parenting*.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treal, Canada.
- Katz, L. F., Wilson, B., & Gottman, J. M. (1999). Meta-emotion philosophy and family adjustment: Making an emotional connection. In J. Brooks-Gunn & M. J. Cox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pp. 131-16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Kim, I. J., Kim, L. C., & Kelly, J. G.,(2006). Developing Cultural competence with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2), 149-165.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napp, M. L. (1978).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Vol.2)*.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Child Abuse & Neglect*, 27, 199-213.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86-703.
- Kuebli, J., & Fivush, R. (1992). Gender Difference in parent child conversations about past emotion. *Sex Roles*, 12, 683-698.
- Larsen, R.,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Malatesta, C. Z., & Haviland, J. (1985).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4), 991-1003.
- McDowell David J., & Parke, R. D. (2000) Different knowledge of display rules fo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fluence from parents, influence on peers. *Social Development*, 9, 415-432.
- McGillic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 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Elwain, N. L., Halberstadt, A. G. & Volling, B. L.(2007). Mother-and father-reported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young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78, 1407-1425.
- Nahm, E. (2006). A cross-cultural comparison

- of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child interaction.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67(7). (UMI No. 3224266).
- Noller, P. (2001). Attachment insecurity as a filter in the decoding and encoding of nonverbal behavior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9, 171-176.
- O'Neal, C. & Magai, C. (2005). Do parents respond in different ways when children feel different emotions? The emotional context of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467 - 487.
- Pruett, K. D. (2000). *Fatherhoo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ewYork.: Free Press.
- Rubin, H. K., & Chung, O.(2006).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 Wheeler, L., & Nezleck, J. (1977). Sex differences in socail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742-754.
- Yi, S. (1993). Transformation of child socialization in Korean Culture: Perspectives on Korean care,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5, 17-24.
-

1차 원고 접수: 2012.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05. 18

최종게재결정: 2012. 05. 20

Korean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and Emotion related Parenting

Yoonkyung Jeong, Hyejin Park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arents'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To these ends, both par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al beliefs about feelings, parents' own emotional expression, coping strategies for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emotion talk. Our results showed that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include beliefs about emotional language, developmental readiness, emotional bonding, and emotion expression. Beliefs about emotional bonding are the highest, and gender (mother vs. father) differences are the largest in terms of beliefs about emotion expression. Our results also revealed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positive and intimate emotions and the frequency of emotion talk with their children. Finally, we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d their parenting behavior in both parents.

Keywords: parental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emotion related parenting, emotion expression, response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emotion talk